

관상동맥조영술 정상인 비심장성 흉통환자의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결과와 유용성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내과학교실

*손병관 · 한동수 · 박윤경 · 김태엽 · 전용철 · 손주현 · 이재웅

배경 및 목적 : 비전형적 흉통은 심장관련 질환 외 위식도 역류나 식도 운동장애와 같은 소화기 질환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심장성 흉통환자의 평가에 있어 식도운동장애나 위식도역류 질환을 증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검사나 식도 내압검사 등이 주요 검사법으로 소개되었다. 저자들은 소화성 궤양 등과 같은 기질적 소화기 질환에서도 비전형적 흉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비심장성 흉통환자를 대상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결과와 그 유용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환자 및 방법 :** 2005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심증과 유사한 전흉부 불편감이나 통증을 주소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심혈관 조영술 정상인 183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환자의 평균 연령은 57.4세로 남자가 83명(45.4%), 여자가 100명(54.6%)이었다. LA분류 A이상의 역류성 식도염이 34예(18.6%)로 가장 많았고, 십이지장궤양이 20예(10.9%), 위궤양이 18예(9.8%)였다.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성궤양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는 5예(2.7%)였고 Mallory-Weiss열상 1예가 발견되었다. 20예(10.9%)에서 식도열공허니아가 관찰되었고 이 중 8예는 LA-A이상의 역류성 식도염과 동반되어 있었다. **결론 :** 심혈관 조영술 정상인 흉통 호소환자의 상당수에서 비심장성 흉통의 원인으로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등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로 진단할 수 있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는 비교적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 비심장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소화기 관련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다. 따라서 비심장성 흉통 환자에서 소화기 관련 질환을 평가시 기능성 식도 질환에 대한 검사에 앞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우선 시행하여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성 궤양과 같은 기질적 소화기 질환을 진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시경 생검과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 시행 후 병리학적 진단의 차이에 대한 고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연구소

김영대 · 조주영 · 정인섭 · 고봉민 · 홍수진 · 유창범 · 김진오 · 이준성 · 이문성 · 진소영 · 심찬섭 · 김부성

목적 : 내시경 생검과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에 의해 획득된 조직과의 병리학적 진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내시경 소견 및 생검상 조기 위암이나 위샘종이 의심되어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시행했던 447 병변 중 내시경 생검 결과와 획득된 조직의 병리학적 진단을 비교할 수 있었던 434 병변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1) 434병변 중 생검상 비정형성을 보였던 경우가 14병변, 저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샘종이 141병변, 고도 이형성증 및 상피내 암종을 동반한 샘종이 60병변, 분화암 및 중등도 분화도를 보이는 샘암종이 199병변, 미분화암이 14병변였다. 2) 434병변 중 내시경 점막하 박리 후 병리학적 진단이 바뀌었는 경우가 252병변(58.06%)였다. 생검상 비정형성을 보였던 14병변 중 술후 고도 이형성증 및 상피내 암종을 동반한 샘종과 분화암 및 중등도의 분화도를 보이는 샘암종으로 진단된 경우는 9병변(64.28%)였고, 저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샘종 141병변에서는 75병변(53.19%)였다. 미분화암 14병변 중 1병변(7.14%)에서 중등도의 분화도를 보이는 샘암종으로 진단되었다. 3) 동일한 병리의사가 판독을 한 경우는 모두 56병변였고 이중 24병변(42.86%)에서 술후 병리학적 진단이 바뀌었다. **결론 :** 조기 위암과 위샘종의 내시경 생검과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 후 획득된 조직을 비교시 병리학적 진단이 변하였던 경우가 58.06%로 높았다. 내시경 생검상 비정형성을 보이거나 저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샘종으로 진단된 경우 추적 관찰만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통해 전체 병변을 획득하여 정확한 병리학적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